

광주시청 김정길·김영건, 탁구 금빛 스매싱 예고



패럴림픽 남자 단식 4강 진출...내일 준결승전

광주 김정길·김영건(이상 광주시청)이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집안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김정길(38)은 지난 4일(한국시간)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치러진 MS4 남자 단식 8강에서 튀르키예 출신 네심 투란을 세트스코어 3-1(11-7 5-11 5-11 6-11)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이번 경기를 통해 김정길은 남자 복식 복승전에 성공했다. 김정길은 지난달 30일 김영건(40)과 조를 이룬 MD8 남자 복식 8강에서 네심 투란-압둘라 오트루크(튀르키예)조에 세트스코어 0-3(4-11 7-11 6-11)으로 패하며 4강 진출 앞 고배를 마셨다. 김정길은 2004년 대구 산악자전거 서킷에서 낙상해 척추장애를 입고 병원 입원 중 권유를 받아 탁구를 시작했다. 탁구하는 동안은 장애를 잊을 수 있었다는 그는 2024 몬테네그로 오픈 단식과 혼합복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2 런던 대회 단체전은

메달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20 도쿄 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다. 김정길의 준결승 상대는 강적으로 꼽히는 '세계 랭킹 1위' 차이웃 완차이(태국)다. 김정길은 김영건과 출전한 '안달루시아 2022 장애인탁구세계선수권' 남자 복식에서 차이웃 완차이-글린반추엔 유타작(태국)조를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정상에 오른 기억이 있다. 지금까지 패럴림픽 개인전에서 1위에 오른 적이 없는 김정길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단식 금메달을 노린다. 이어 출격할 김영건도 기분 좋은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패럴림픽 선수단 주장을 맡은 김영건은 4일 열린 MS4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보리스크 트라브니세크(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1-3(8-11 11-6 7-11 10-12)승을 거뒀다. '휠체어 탁구 터줏대감' 김영건은 1997년 척추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문창주 전 대표팀 감독의 권유로 탁구를 시작했다. 올해로 태극마크를 단 지 24년 째인 그는 2004 아테네(금2)·2008 베이징·2012 런던(금1, 은1)·



2016 리우데자네이루(금1)·2020 도쿄 대회(은2)에 이어 이번 파리 대회로 여섯 번째 패럴림픽 출전을 기록했다. 김영건 역시 이번 대회에서는 단식 경기가 마지

막 금메달 획득 기쁘다.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메달권에 들지 못했던 그는 MS4 단식 4강에서 나이지리아의 이사우 오구룬과 맞붙는다.

오는 7일 오후 7시 김정길과 김영건의 단식 준결승전이 펼쳐지며, 준결승에서 승리하게 되면 8일 오전 4시15분 결승을 치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무안군청, 안방서 전국검도대회 우승 노린다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5일 '제21회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개인 예선전이 열리고 있다. <무안군청검도단 제공>

8일까지 무안 스포츠파크

'제21회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가 5일 무안에서 개막했다. 한국실업연맹이 주최하고 무안군청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진다. 무안에서 열리는 대회만큼 전남 유일 실업 검도단인 무안군청 검도단의 안방 활약 또한 주목된다. 2002년 창단한 무안군청 검도단은 이광철 감독, 김태일 코치가 지도를 맡고 있으며, 유하늘, 손인준, 김한범, 이후성, 정경인, 임동영, 양동관, 김

병훈으로 구성됐다. 무안군청은 지난해 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양동관과 유하늘이 각각 3단부와 6단부이상에서 개인전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광철 감독은 "지난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작년 전국체전에서도 준우승을 거뒀던 만큼 이번 추계대회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부상 없이 기량 잘 발휘해서 대회 잘 치렀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오상은 감독이 지휘하는 탐솔라 검도단(허윤영-전지훈-정서현·박세연)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 여자부 단체전 우승을 노린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계 페굴라, 시비오테크 잡고 첫 US오픈 테니스 4강 진출

한국계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제시카 페굴라(6위)가 세계 1위 이가 시비오테크(폴란드)를 물리치고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달러·약 1000억원) 준결승에 올랐다. 페굴라는 5일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시비오테크를 2-0(6-2 6-4)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페굴라는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다. 페굴라는 이번 대회 전까지 6차례 메이저 대회 8강에 오르기도 한 번도 4강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 징크스를 '세계 1위'를 맞아 시원하게 깨버렸다. 2022년 US오픈 8강전에서 시비오테크에게 당한 패배도 2년 만에 설욕했다. 시비오테크와 상대 전적에서는 4승 6패로 격차를 좁혔다. 페굴라의 열세가 점쳐진 경기였지만, 승부의 흐름은 정반대로 흘렀다. 시비오테크는 1세트에서 서브 성공률이 36%에 그치는 등 흔들렸다. 초반에는 첫 서브 12개 중 단 2개만 라인 안으로 넣는 최악의 성공률(16.7%)을 보여줬다. 페굴라는 앞서나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나갔고, 결국 '대어'를 잡는 데 성공했다. 시비오테크는 "서브가 왜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낙담했다.



페굴라는 "초반에 시비오테크를 몰아붙여 좌절 시켰다"면서 "2세트에 시비오테크의 경기력이 올라갈 때도 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이긴 것 같다"고 말했다. 페굴라는 어머니(킵 페굴라)가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선수다. 부모가 미국프로풋볼(NFL) 버펄로 빌스,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 버펄로 세이버스 구단주

인 '금수저'이기도 하다. 이날 여자 단식 4강 대진이 확정됐다. 페굴라는 베아트리스 아다르마이아(21위·브라질)를 2-0(6-1 6-4)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카롤리나 무호바(52위·체코)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대진표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에마 나바로(12위)와 세계 2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가 격돌한다. /연합뉴스

최정, 닥터지배 우승...여자 바둑 1위 탈환

신진서, 57개월 연속 '넘버원' 최정 9단이 한 달 만에 여자랭킹 1위를 되찾았다. 최정은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9월 바둑 랭킹에서 9천486점을 기록해 김은지(9481점) 9단을 5점 차이로 제치고 여자 1위에 올랐다. 올 전반기 다소 부진했던 최정은 지난 8월 랭킹에서 김은지에게 밀려 128개월 동안 지켜온 여자

14승 3패를 거두며 전체 랭킹에서 개인 최고인 27위에 올랐다. 여자랭킹 3위는 오유진(전체 80위) 9단, 4위는 김재영(전체 83위) 9단이 지켰다. 한국 바둑의 간판스타 신진서 9단은 57개월 연속 전체 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지난 8월 러커패와 쏘팔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우승하는 등 10승 1패를 기록했다. 박정환 9단은 지난달 2승 4패로 부진했으나 2위를 지켰고 신민준 9단과 변상일 9단이 3·4위로 뒤를 이었다. 강동윤 9단과 김명훈 9단은 자리를 맞바꾼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피어오르다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2024. 8. 16(금) ~ 9. 15(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